

# 전세사기 피해 72%가 20·30대

정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9109명 인정… 무자본 캡투기 대다수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1만007건 중 9109건에 대해 가결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2130명), 40대(1489명), 50대(655명), 60대(295명), 70대(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인 20·30대가 전체의 72.0%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캡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유형이 대다수(43.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19.3%)이 많았고, 단독·다가구(12.3%)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거주 지역은 상당수는 서울 2366건(26.0%), 경기 1867건(20.8%), 인천 1865건(20.5%) 등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66.9%에 달하

는 셈이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 1149건(12.6%), 대전 752건(8.3%) 등에 분포했다.

피해 보증금 금액은 주로 3억원 이하(96.9%)가 대다수였다.

전체 피해자 9109명 중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799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

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IH)

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着手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5일 만성2단지 경로당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만성 에코2단지 경로당 개소식

전개공 최정호 사장·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등 참석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전주 만성지구에 공급한 에코2단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로당 개소식을 5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태용 경로회장과 비롯하여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서세현 혁신동장, 그리고 단지 내 어르신 3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기념의 순간을 함께했다.

특히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완주군에 기탁하는 등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는 2,000만원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하기도 했다.

더불어 원주지역내 취약계층을 돋기 위해 올해까지 5,0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국주영 이사장은 "올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은 런피스킨 발생에다 시료값 상승, 매출 하락 등 여러 악재가 겹쳐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고 전북개발공사는 침대와 쇼파를 비롯한 각종 비품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만성에코2단지 경로당 개소를 축하드려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최정호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완주한우협동조합 창립 10주년… “조합원 권리향상·지역사회 상생·협력” 다짐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북 1호 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국원호)이 내년에는 조합원의 권리향상을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협동조합이 될 것을 선언했다.

먼저 국원호 이사장은 “올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 이사장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무한생체 한우” 생산으로 소비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한우 정려금제’를 지속 시행하고, 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추가 정려금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 환원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완주한우협동조합은 내년에도 폐사축 처리비를 지원하는 등 활

2000만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1000만원은 이웃돕기에 각각 기탁



창립 10주년을 맞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장학금 전달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사진은 장학금 전달식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경보전에 더욱 힘쓰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티(Meal Kit) 제품을 출시해 기공품 판매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설날, 추석, 어린이 날, 어버이 날, 한우 먹는 날(11월 1일) 등 명절이나 기념일에 한우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열어 소비 활성화 및 조합원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기본이념인 상생의 가치가 지역사회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활원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완주군에 기탁하는 등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는 2,000만원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하기도 했다.

더불어 원주지역내 취약계층을 돋기 위해 올해까지 5,0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국주영 이사장은 “올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은 런피스킨 발생에다 시료값 상승, 매출 하락 등 여러 악재가 겹쳐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한전 익산지사, 소외계층 150여 세대 지원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동참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영일) 사회봉사단은 5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한전 익산지사 사회봉사단은 김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매를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장을 담그기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

아날 익산지사 사회봉사단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익산지역 소외계층 150여 세대에 전달됐다.

김영일 지사장은 “경기침체로 인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사회봉사단은 5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온실 병충해 관리용 무인 로봇 개발

농진청, 토마토, 파프리카 등 병충해 진단… 농업 생산성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과체류 병충해 판별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전북대학교(박동선 교수 연구팀), 산업체와 함께 ‘온실 병충해 관리용 감시(모니터링) 무인 로봇’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은 최소 8시간 이상 자동주행하며 카메라와 정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이용해 면적

이 넓은 온실에서 병충해가 발생한 위치(오차 5cm 이내), 증상 등을 파악한다.

이렇게 수집한 관리 정보를 농업인

에게 제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 상부에는 리프트와 로봇팔이

설치돼 최대 3m까지 작품 높이에 맞게 병충해 발생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로봇이 이동하며 카메라로 활동

작물 동영상을 인공지능 진단 모형

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